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
		배포일자	2022년 7월 4일(월) 총 2매	
담당 부서	수 산 과	담당자	• 수산자원팀장 이경주 ☎440-4871 • 담당자 박윤비 ☎440-4874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여름철 고수온 대비해 수산 증·양식시설 합동점검
- 7월15일 까지 2주간 방문 합동점검,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 피해예방 위해 -

인천시가 올여름 수온에 민감한 어·패류의 관리 방법을 전파하기 위해 양식어장을 찾아 나선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여름철 고수온*에 따른 어·패류 폐사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식어장을 방문해 대응장비 등 수산 증·양식시설, 총 28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* 고수온이란? 여름철 바다 수온이 28℃ 이상으로 상승하는 현상

특보체계 : (관심) 수온 28℃ 도달 1주일 전 → (주의보) 수온 28℃ 도달 → (경보) 3일 이상 유지

국립수산물과학원과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은 북극 이상고온에 따른 제트기류 약화와 기압계 정체로 폭염 일수가 증가해, 수온이 평년(30년간 8월 평균수온, 26.1℃) 대비 1℃ 정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.

이에 따라 시는 ‘2022년 여름철 고수온 대비 수산 증·양식분야 점

검 계획’을 수립하고, 관내 어·패류(바지락) 양식장 및 수산종자생산 시설 등에 대해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, 군·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.

주요 점검사항은 △고수온 대응 장비(액화산소공급기, 차광막 등) 확보 및 관리 여부 △수온상승 시 관리대책(조기출하 및 사육밀도 조정 등) 마련 여부 △양식어종 사육 상태 점검 등이다. 아울러, 고수온기 양식어장 관리요령에 대한 현장지도·안내 및 입식신고 홍보로 고수온 피해 예방에 대응할 계획이다.

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“고수온에 따른 수산 분야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 하겠다”며 “어업 현장에서도 양식장 관리요령을 숙지하고 조기출하, 사료공급 중단, 표준 사육량 준수 등 양식장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
<사진> 관련사진

